

다산포럼

김민환



려를 놓아 한다. NBC 등 주요 네트워크 텔레비전의 황금 시간대 CPM 20달러에 비하면 낮지만 옥외광고 치고는 매우 비싼 편이다.

이들 가운데 주목도가 가장 높은 건 역시 르네상스호텔 벽면에 있는 광고 스크린이다. “눈이 가는 곳이면 코카콜라 광고판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바로 이 호텔 벽면에 코카콜라 광고 스크린이 아침 없이 자리 잡고 있다. 1935년 이래 코카콜라는 그 자리를 고수해왔다.

그런데 타임스퀘어에 기본 사람이며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충 어림잡을 수는 있다. 미국의 한 광고 전문지에 따르면 매월 20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를 낸다. 돈은 얼마나 삼성은 그 스크린을 얻기 위해 10년을 기다렸다고 한다. 삼성 광고 스크린 말고도 타임스퀘어에는 또 다른 한국 광고스크린이 있다. 브로드웨이와 45번 가가 마주치는 코너에 LG 광고스크린이 서있다. 광고 전문지에 따르면 LG는 장기 사용을 조건으로 매월 16만 5천 달러를 낸다.

지난 연말 무렵, 바로 그 타임스퀘어에 구경 갔다가 나이든 한국 관광객 한 분을 만났다. 어릴 적에 미군 지포차를 뒤따라 다니며 “기브 미 초콜릿”을 외친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감격적이라고 했다. 나 역시 수년 전에 거기서 묵이 메지 않았던가.

새해를 맞아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운 기업인들에게 충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경제전쟁의 최전방에서 신화 창조를 뛰어진 노동자들에게 아울러 감사드린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고,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해가 돼야 한다.

〈고려대 신방과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인과 노동자에게 감사를

하게 만든다. 번쩍번쩍하는 비디오 광고 스크린이 널려있어 마치 광고 전시장에 들어선 것 같다. 대형 광고판은 스무 개가 넘고 이를 광고판이 1년에 벌어들이는 광고수익은 모두 합해 7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곳의 옥외광고 단가는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광고 단가는 CPM(시청자 1천 명 당 가격)으로 산정하는데 8천만 명이 시청한다는 미식축구 슈퍼볼의 스팟 광고 CPM이 2.6달러인데 비해 타임스퀘어 광고판은 위치에 따라 2달러에서 5달

로 다양화된다. 번쩍번쩍하는 비디오 광고 스크린으로 삼성 광고스크린이 있다. 삼성의 고유한 로고가 나오는가 하면 LCD TV, MP3, 휴대전화, 카메라, 비디오 등의 삼성제품 광고가 현란하게 펼쳐진다. 세계 최고의 옥외 광고 스크린에, 그것도 코카콜라 바로 옆자리에 삼성 스크린이 들어서 있다니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삼성은 그 광고판을 사용하는데 돈을 얼마나 쓸까? 그건 비밀이다. 대행사와 광고주 간의 계약에 비밀 준수 의무를 명문화해 양쪽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7번가, 42번가가 교차하며 만들어낸 나비넥타이 모양의 공간. 이곳은 미국 사람들은 ‘타임스퀘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블레이커스퀘어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곳으로 이사온 뒤 타임스퀘어로 바뀌었다. 새해 첫 자정에 뉴욕타임스 옆 사옥에서 불을 밝힌 유리 꽃을 내려 새해를 알리는 새해맞이 축제가 매년 여기서 열린다. 올해도 군중이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꼭 같은 행사가 열렸고 이걸 약 2억 명의 시청자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보았다.

19세기에 이곳은 마구간 사이로 말 거간꾼이 분주하게 오가며 말을 파는 말 시장이었다. 그러나 1899년에 극장이 들어서면서 차츰 미국 공연문화의 명소로 바뀌었고, 1900년대에 대대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 면모를 일신했다.

이제 이곳은 금융, 언론, 문화,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4천만 명

시설

새해 최대 과제는 ‘지역 경제 살리기’다

새해를 맞은 광주·전남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다. 광주일보와 갤럽이 지난해 연말 실시한 시·도민 의식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이 새해 소망으로 경제적 여유, 취업 등 경제 문제를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1순위도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20.8%), 경기회복과 경제 활성화(13.6%), 부동산 안정(13.6%) 등 대부분 경제 관련 문제였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덫에 걸려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력증에 빠진 채 가계 빚만 커지면서 서민 생활은 더욱 힘든 한 해였다. 올해 경제 전망도 막막하기만 하다. 지역민들의 43%가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기 않아도 올해 경제는 성장을 4%대 초반을 넘지 못할 만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 연말에 있을 대선이다. 벌써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과 소비를 증대시켜 다시 성장의 동력을 얻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선진국 진입과 재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한다

정해년 새해를 맞은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있다.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이뤄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삼류국가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선택은 국민들의 뜻이다. 누구를 새 대통령으로 뽑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은 새해 첫 날부터 분주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선진한국 건설과 경제살리기, 국민회합, 부정부패 척결,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을 다짐했다. 예비주자들의 화려한 ‘말 전진’을 들으며 국민들은 우리의 정치에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無等鼓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노인 신세를 면기 어렵게 됐다. 구립 31일 65번째 생일을 맞은 그는 이제부터 좋은 삶을 매달 배달돼오는 노령연금봉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노령연금을 받은 사령관은 그가 두 번째. 따라서 단행하는 영국 축구판에서 그는 분명 산ぬ은이인 셈이다.

그런 그가 올해 또 다른 성공을 일구고 싶다고 생일날 자신의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수없는 승리와 영광을 만끽한 그였지만 또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다.

2007년 새해가 밝았고 올해에도 수많은 한국의 스포츠 유

광주들이 자신의 성공과 조국의 영예를 위해 세계의 높은 벽에 도전한다. 오는 28일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잠깐 몸을 푸는 김연아는 3월 세계대회에서 2승2패의 최대 라이벌 일본의 아사다 마오와 피겨여왕자리를 다투를 예정이다. 도하 아시안게임의 MVP 수영의 박태환은 이제 세계로 진출, 자신의 우상인 호주

당찬 소녀 위성미는 올해도 어김없이 남자 대회 도전을 계속한다. 완도 출신의 열짱 당구소녀 차유람도 큰 무대에서 실력을 쓰아 세계를 펼칠 것이다며 짐을 싸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들의 끝없는 도전의식

에는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있어 세계 정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남들은 어렵다는데 왜 난 되지?’라는 생각이라고 밝힌 멋진 김연아처럼, 상대를 능가하는 정신력으로 올해도 국민들의 기쁨을 드리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부부장 kihh@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보다 매너있는 행동을

저녁시간에 짬을 내어 아르바이트 겸 대리운전을 한지 서너 달쯤 됐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전화를 하면 몇 분안에 도착하느냐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손님이 많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간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손님은 자리에 없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얼른 전화걸어 보면 “아, 뭐야? 나 지금 다른 차 타고 가고 있어”라며 반말로 시큰둥하게 말해버린다. 이미 여러 군데 펼쳐진 대리운전 기사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밤 짬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뛰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조금만 배려해주고, 단 2분만 더 기다려 준다면 그 2분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총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또 일행들을 배웅해 준다면 이리로 가자,

실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전략 세워야

광주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주민들의 자발적 질서의식을 촉구하는 각종 홍보와 단속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초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습지지역 200여곳을 선정한 뒤 베려진 화분 등을 도색해 금잔화·편지·국화 등을 심어 꽃밭을 조성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주민들은 꽃밭이 된 상습 투기 지역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도심 속의 정원으로 가꾸고 있

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소소한 아이디어나 전시행정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치단체의 이런 노력들은 주민들의 질서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홍보나 단속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자연 환경을 보호합니다’라는 수많은 안내 협수막과 표지판은 실질적인 행동 계획’이나 도시의 미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도 이같은 실현성 있는 방안을 시행했으면 한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광주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주민들의 자발적 질서의식을 촉구하는 각종 홍보와 단속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초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습지지역 200여곳을 선정한 뒤 베려진 화분 등을 도색해 금잔화·편지·국화 등을

심어 꽃밭을 조성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주민들은 꽃밭이 된 상습 투기

지역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도심 속의 정원으로 가꾸고 있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기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대표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7-9500>

<F A X 222-4267> <F A X 222-536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시 압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